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Analysis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Korean Household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박 미 희
부 교수 여 정 성

Dept. of Consumer Studies and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Park, Mi Hee
Associate Prof. : Yeo, Jung 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Study results showed most households spent money on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Various socio-demographic and parents' cognitive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family income had the greatest influence. Seven clusters were identified on the basis of each percentage of expenditures allocated to four private educational methods out of total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in Korea and have implications in the government policy decision-making on private education.

I. 서론

1996년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 취학률(18~ 21세 인구중 재학생 비율)이 60%를 넘어섰으며,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는 20.2%로서 OECD 가입국의 평균인 20%를 상회하여 명실상부한 고학력시대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6). 또한 가구주의 65%가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응답한 것과 중·고등학교 및 전문대 이상 재학생들의 82.3%가 4년제 대학교 이상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통계청, 1999), 우리

* 본 논문은 2000학년도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부속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사회의 교육열 추구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취직, 결혼 등 여러 과정에서 중요한 여과기능을 수행하는 잣대로 인식하는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또는 좋은 대학을 나올수록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결혼할 때도 좋은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계층이동을 꾀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높은 교육열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가계에서 지출하는 교육비는 가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기준 도시가구와 농가에서 지출하는 연간 교육비가 연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1.2%, 10.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는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바, 66.7%가 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 또한 대우경제연구소(1997)의 「93~96년 가구당 교육비 지출규모 변화」보고서에 따르면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70% 이상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고, 1996년 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교육비는 월 30만7천원으로서 1993년에 비해 50.5%나 증가하였으며, 총 가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의 16.8%에서 19.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중에서도 특히 사교육비 규모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1997)이 전국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6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1997년 과외비 총액은 9조6천2백48억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2.24% 규모이며 1994년의 과외비 총액보다 3년새 7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외비 총액은 1997년 정부예산 67조원의 14.2%, 교육예산 18조원의 52.6%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변인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주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각 집단별 사교육비 지

출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효과적인 사교육 정책 수립에 작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의 양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으로서 교육투자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사용해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각 사교육 수단별로 지출되는 비용을 토대로 개인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동안 행해진 사교육비 관련 연구들이 주로 가계 단위의 분석을 행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가계는 물론 개인, 즉 자녀 단위의 분석도 병행된다. 아울러 여러 비목들 간의 지출비율을 이용한 지출 유형 분석은 많으나 개별 비목에 대한 지출유형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 지출의 한 비목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유형화는 각 사교육 수단을 이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사교육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적정 선을 벗어나 과도하게 지출됨으로써 가계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도 왜곡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뚜렷하게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인 표본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는 정확한 사교육비 지출 실태의 파악을 통해 바람직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풍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투자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와 그 효과를 설명할 때 주로 교육과 소득분배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이며,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대안적 이론으로는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 이중노동시장가설(dual labor market

hypothesis)¹⁾, 급진론적 접근(radical approach)²⁾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관한 고찰이 주된 목적이나, 교육투자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익이 고소득이므로 이 이론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학력 현상을 진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인적자본이론

기계나 생산설비 등 물적 자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이 지닌 능력 및 지식·기술·경험·건강·태도 등을 인적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기술 등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비형식·형식 교육을 통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훈련·경험 및 노동유동을 통하여 획득되고 개발된다는 것이 인적자본이론의 중심개념이다(Mincer, 1979; 공은배 외, 1985에서 재인용).

인적자본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Schultz(1961)는 유용한 기술이나 지식은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한 형태이며,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하였다. 또한 Mincer(1962)와 Becker(1981)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노동자의 차이는 노동자가 획득한 인적자본의 양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의 질적 차이에서 기인하며, 그에 따라 노동의 대가인 소득이나 사회적 성취가 좌우된다는 것이다(문숙재 등, 1996).

결국 이 이론에 따르면, 교육은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요 수단으로서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되고, 교육을 통해 높은 생산성을 습득하게 된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당연한 귀결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임금격차가 생산성 격차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학교가 수행하는 기능이

인지적 지식의 향상이 아닌 사회화과정에 있으며, 교육이 인적자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은 개인 소득분배의 일부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적자본론의 대안적인 이론으로서 선별가설, 이중노동시장가설, 급진론 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2. 선별가설

인적자본론에 대한 반론으로 대두한 이 이론은 인적자본론에서와 같은 교육-생산성-소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교육을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의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Layard & Psacharopoulos, 1974). 다시 말해 교육 그 자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잠재적 생산성의 수준을 알려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주도하였던 Arrow(1973)는 개인의 생산능력이 완전히 교육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육 이외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 1) 이중노동시장이론은 산업경제 구조의 분단과정이 직종, 계급 등에 따라 노동력과 노동시장을 단절시킨다고 주장한다. 즉 현대 산업경제는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되는 중심산업과 경쟁적 자본주의에 의한 주변산업의 이중적 구조로 발전되어 왔으며, 노동자의 소득은 생산성이나 학력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노동자가 경제의 어느 구조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다(Beck et al., 1980; Psacharopoulos, 1975).
- 2) 급진론적 접근은 교육과 소득의 관계를 신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 따라 설명하며, 소득의 불균등은 가정배경의 차이, 즉 사회계층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은 자본주의적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있다고 한다. 즉, 고학력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서뿐만 아니라 교육이 제공에 기초를 둔 권력구조를 수용하는 태도를 배양하기 때문이라고 봄으로써, 교육을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이해한다(Bowles, 1972; 이준구, 1993).

갖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있어서 교육은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Layard & Psacharopoulos, 1974). 한편 Stiglitz(1975)는 어떤 요인 또는 물건의 질을 확인하는 것을 선별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질적 측면에 따라 개인 혹은 제품을 분류하는 도구를 선별도구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어느 개인이 보다 생산적인 특성을 구비한 것으로 분류되면 그 분류 결과 자체로 상대적 소득의 증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에 동원되는 정보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공은배 외, 1985).

그러나 인적자본이론에 대한 비판이 교육에 의해서 기술이 향상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선별가설 역시 자료의 제약 또는 교육적인 신호와 선별에 대한 이론적인 시사점이 적절하게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Riley, 1979).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이 교육의 기능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이 두 이론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교육의 과정에서는 하나의 투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학교교육의 선별기능은 불완전한 정보의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교육이 생산성 향상과 선별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Mincer, 1979; 공은배 외, 1985에서 재인용).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계와 개인의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 관련 변수(부모의 직업·학력, 가

계소득, 거주지역, 주택 소유여부, 주택형태, 자녀수), 부모의 교육태도 변수(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 및 자녀 관련 변수(자녀의 성별, 학교급)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1. 배경변수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2-2. 배경변수가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사교육 수단(학원, 과외, 학습지, 방과후 보충학습)별 지출비율에 따라 개인은 어떻게 유형화되며 각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및 변수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97. 3. 20~4.4까지 만3세부터 대입 재수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 5,004 가구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의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의 표본은 인구 비례 확률 추출법에 따른 다단계 무작위 추출로 설계되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광역 행정 단위별로 14개층 6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와 8개도로 나누고 도는 행정 단위별로 시·읍·면으로 구분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가구당 만 3세에서 대입 재수생까지의 자녀를 최대한 5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원자료에는 5,004 가구의 8,925명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 중에서 자녀가 한 명과 두 명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소득 등 중요 자료가 누락된 사례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4,488 가구 자료와 7,382명의 자녀 자료가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자료의 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중회귀분석, t-test, 분산분석, 군집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

(1) 사교육비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은 각 연구마다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서는 '자녀의 학교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외에 재능개발이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각 가계가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만3세 이상 자녀부터 고등학생(재수생 포함) 자녀까지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교육비에는 학원수강비, 과외교습비, 유치원비용, 학습지구독료, 방과후 보충학습비가 포함되며 이 사교육 수단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하였다. '97년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의 사교육비의 평균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산출하였다.

(2) 부모의 교육태도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태도를 말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과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로 구성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은 자신의 자녀를 어느 학교급까지 교육시킬 지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을 말하며 '대졸 이하'와 '대학원졸'로 구분하였다.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는 조사대상자들이 교육의 기능을 인식함에 있어서, 교육이 개인의 능력 등 인적자본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수단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출세, 승진, 결혼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로 기능한다고 하는 선별가설에 동조하는 수준을 말한다. 선별가설의 동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여섯 문항을 구성하여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별로 '전적으로 그렇다'에 1점을 부여하였고,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각각 2점, 3점, 4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는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전적으로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여 여섯 문항에 대한 총점을 합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가 높으며, 총점은 6점에서 24점 사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기준으로 16점 이하는 지지도가 낮은 '하' 집

단, 17~20점은 '중', 21~24점은 '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사교육 수단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학원수강, 과외교습, 유치원 취원, 학습지구독, 방과후 보충학습으로 구분된다.

최종 분석에 이용된 조사 대상 4,488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현황과 집단별 차이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현황

조사대상 가계의 사교육 실시현황을 제시한 <표 2>에 의하면, 91.6%의 가계가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든 자녀에게 시키고 있으며, 전혀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가계는 8.4%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 전체를 분석할 경우, 36.0%의 가구가 소득의 5% 미만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한편, 가계소득의 15%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는 16.7%로 나타났으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로 한정시킬 경우, 5% 미만 지출 가구는 30.1%로 줄어든 반면, 15% 이상 지출하는 가구는 18.1%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또한 한 자녀 가구의 경우 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54.9%이고 15%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6.7%인 반면, 두 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25.6%이고 15%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22.1%로 나타난 바, 사교육비의 지출이 요구되는 자녀가 많을수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교육 수단별로는 학원수강이 가장 보편적이어서 63.6%의 가계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었고, 학습지(48.6%), 보충학습(21.7%), 유치원(21.1%), 과외(9.8%) 순으로 나타났으며(<표 2>), 각 사교육 수

〈표 1〉 조사대상 가계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가구(%)

항 목	구 분	빈도 N=4,488	항 목	구 분	빈도 N=4,488		
거주지	서울	1,166(26.0)	아버지직업	사무직	1,364(30.4)		
	5대광역시	1,152(25.7)		자영업자	1,230(27.4)		
	기타 지역	2,170(48.4)		생산기능직	752(16.8)		
주택소유 여부	자가	2,858(63.7)		전문·기술직	419(9.3)		
	전세	1,473(32.8)		농수산업자	319(7.1)		
	월세 및 기타	157(3.5)		판매서비스직	265(5.9)		
주택형태	단독주택	1,985(44.2)		행정관리직	54(1.2)		
	아파트	1,658(36.9)		퇴직/무직	56(1.2)		
	연립/다세대 등	845(18.8)		무응답	29(0.6)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917(20.4)		어머니직업	전업주부	3,369(75.1)	
	150~200만원 미만	1,162(25.9)	자영업자		399(8.9)		
	200~250만원 미만	1,123(25.0)	농수산업자		212(4.7)		
	250~300만원 미만	437(9.7)	판매서비스직		190(4.2)		
	300~350만원 미만	497(11.1)	생산기능직		143(3.2)		
350만원 이상	352(7.8)	사무직	106(2.4)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645(14.4)	전문·기술직		50(1.1)		
	고졸	2,153(48.0)	행정관리직		5(0.1)		
	대졸	1,515(33.8)	퇴직/무직		8(0.2)		
	대학원졸	143(3.2)	무응답		6(0.1)		
	무응답	32(0.7)	사교육비 지출여부	지출함	4,112(91.6)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이하	990(22.1)		지출하지 않음	376(8.4)		
	고졸	2,538(56.6)	자녀수	1명	1,597(35.6)		
	대졸	935(20.8)		2명	2,891(64.4)		
	대학원졸	16(0.4)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첫째 자녀+둘째 자녀)	
무응답	9(0.2)	취학전	632(39.6)	취학전+취학전	278(9.6)		
계			1,597(100.0)	초등학생	337(21.1)	초등학생+취학전	656(22.7)
취 학 전	초등학생	중 학 생	고등학생	중학생	159(10.0)	중학생+취학전	31(1.1)
				고등학생+취학전	10(0.3)		
				초등학생+초등학생	565(19.5)		
				중학생+초등학생	452(15.6)		
				고등학생+초등학생	73(2.5)		
중학생+중학생	147(5.1)						
고등학생+중학생	437(15.1)						
고등학생+고등학생	242(8.4)						
계			1,597(100.0)	계	2,891(100.0)		

〈표 2〉 가계의 사교육 실시현황

단위: 가구(%)

사교육수단 실시여부	전 체	학 원	과 외	유치원	학습지	보충학습
실 시	4,112(91.6)	2,853(63.6)	438(9.8)	946(21.1)	2,181(48.6)	976(21.7)
미 실시	376(8.4)	1,635(36.4)	4,050(90.2)	3,542(78.9)	2,307(51.4)	3,512(78.3)
계	4,488(100.0)	4,488(100.0)	4,488(100.0)	4,488(100.0)	4,488(100.0)	4,488(100.0)

〈표 3〉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

단위: 가구(%)

사교육비 지출비율	전체 가구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전체	사교육비 지출가구		
~ 5% 미만	1,615(36.0)	1,239(30.1)	876(54.9)	739(25.6)
5~10% 미만	1,287(28.7)	1,287(31.3)	442(27.7)	845(29.2)
10~15% 미만	839(18.7)	839(20.4)	172(10.8)	667(23.1)
15~20% 미만	407(9.1)	407(9.9)	58(3.6)	349(12.1)
20~25% 미만	166(3.7)	166(4.0)	29(1.8)	137(4.7)
25% 이상	174(3.9)	174(4.2)	20(1.3)	154(5.3)
계	4,488(100.0)	4,112(100.0)	1,597(100.0)	2,891(100.0)
평균(표준편차)	2.31(1.44)	2.43(1.45)	1.75(1.11)	2.61(1.51)

단별 지출비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가계까지 포함해 전체 가계의 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총사교육비 178,042원 중 학원비 지출이 가장 많아서 102,373원으로 57.5%를 차지했으며, 과외비, 학습지 구독료, 유치원비, 보충학습비 순이었다. 그러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구만을 분석한 결과, 총사교육비는 194,322원이었고, 사교육 수단별로는 과외를 시키는 가구가 가장 적었으나 평균비용은 가장 높아 278,550원이었으며, 학원비, 유치원비, 학습지 구독료, 보충학습비 순이었다. 이와 같이 각 가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단의 순위와 실제로 지출되는 사교육 수단별 비용의 순위가 다르고, 전체 가구와 사교육비 지출 가구만의 사교육 수단별 지출이 서로 다른 것은 각 사교육 수단에 따라 지출되는 평균비용이 상이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추론된다.

한편, 개인의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총사교육비가 136,763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취학 전 아동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각 사교육 수단에 지출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취학전 아동의 경우 1인당 총사교육비 89,155원 중 유치원비가 51,437원(5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원비, 학습지구독료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총사교육비 102,131원 중 학원비 지출이 가장 많아 68,615원(67.2%)이었으며 학습지구독료, 과외비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총사교육비 136,763원 중 학원비로 93,064원(68.0%), 과외비로 31,362원을 지출하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총사교육비로 117,754원을 지출하는데 이 중 학원비가 73,885원(62.7%)으로 가장 많고 과외비, 보충학습비 순으로 나타났다(〈표 5〉).

2) 배경변수별 사교육비 지출 정도

거주지, 월평균 가계소득 등 가계 관련 변수와 부모의 교육태도 변수, 자녀 관련 변수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하위집단 간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표 4〉 사교육 수단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단위: 원, 가구

구분	총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유치원비	학습지비용	보충학습비
전체 평균 (표준편차) N=4,488	178,042 (189,234)	102,373 (128,248)	27,185 (122,649)	21,826 (50,430)	22,044 (36,528)	4,613 (12,755)
%	100.0	57.5	15.3	12.3	12.4	2.6
지출가구평균 (표준편차)	194,322 (189,526)	161,042 (128,161)	278,550 (290,307)	103,549 (60,037)	45,363 (41,088)	21,214 (19,903)
N	4,112	2,853	438	946	2,181	976

〈표 5〉 개인의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 수단별 지출

단위: 원, 명

학교급	사교육 수단	총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유치원비	학습지비용	보충학습비
취학전아동 (N=1,886)	평균 (표준편차)	89,155 (76,833)	22,275 (42,362)	1,872 (24,725)	51,437 (60,255)	13,571 (19,296)	-
초등학생 (N=2,647)	평균 (표준편차)	102,131 (103,870)	68,615 (60,282)	12,240 (77,980)	-	19,731 (29,643)	1,186 (7,318)
중학생 (N=1,377)	평균 (표준편차)	136,763 (143,633)	93,064 (96,170)	31,362 (115,115)	-	9,531 (24,330)	2,807 (8,064)
고등학생 (N=1,472)	평균 (표준편차)	117,754 (183,485)	73,885 (130,077)	29,137 (127,698)	-	5,425 (14,004)	9,308 (13,862)

Scheffe-test($p<.05$)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계 관련 변수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홉 개 변수 모두 집단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등 5대 광역시, 기타 지역 순으로 각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일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으며, 한 자녀 가계보다는 두 자녀 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계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가계,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계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으며,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서비스·기능직 종사자, 농·어업 종사자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나 사무·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가계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부모의 교육태도에 따라서도 집단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이 대학원졸 이상인 가계가 대졸 이하인 가계보다,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가 '중' 이상인 가계가 '하'인 가계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관련 변수 중 첫째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서도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바, 첫째 자녀가 중학생인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 집단, 초등학생 이하 집단의 순이었다.

2.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분석

관련 변수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사교육비와 개인의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가계의 사교육비 분석에는 가계 관련 변수 여덟 개(거주지, 주택 소유여부, 주택형태, 월평균 가계소득,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어머니의 교육수준, 자녀수), 부모의 교육태도 변수 두 개(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 자녀 관련 변수 한 개(자녀의 학교급)로 총 열한 개 변수이며,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 분석에는 이 외에 자녀 관련 변수 한 개(자녀의 성별)를 추가시켰다. 이 때 자녀의 학교급은 가계의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첫째 자녀의 학교급이며, 개인의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그 개인의 학교급임을 밝혀둔다.

이 가운데 월평균 가계소득과 자녀수,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는 연속변수로서 월평균 가계소득은 만원 단위, 자녀수는 한 명과 두 명,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는 6~24점의 분포를 보인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거주지는 기타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과 5대 광역시에 각각 1점을 부여하였

〈표 6〉 가계의 사교육비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항 목	집단 구분	빈도(명)	월평균 사교육비(원)	F비(t값)	scheffé (p<.05)
거주지	서울	1,166	219,888	70.142***	a
	5대 광역시	1,152	197,984		b
	기타 지역	2,170	144,970		c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917	89,423	171,982***	a
	150만-200만 미만	1,162	142,901		b
	200만-250만 미만	1,123	184,237		c
	250만-350만 미만	934	241,126		d
	350만 이상	352	337,760		e
아버지 직업	사무·전문직	1,837	210,868	81.129***	a
	서비스·기능직	1,017	128,768		b
	농·어업	319	77,038		c
	자영업	1,230	200,469		ad
어머니 취업여부	비취업	3,369	182,704	(2.75**)	
	취업	1,119	164,005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645	91,752	157.513***	a
	고졸	2,153	161,824		b
	대졸 이상	1,658	233,927		c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이하	990	100,517	166.442***	a
	고졸	2,538	181,162		b
	대졸 이상	951	251,517		c
주택소유 여부	자가	2,858	198,046	(10.60***)	
	비자가	1,630	142,967		
주택형태	단독주택	1,985	137,760	112.534***	a
	아파트	1,658	229,670		b
	연립/다세대 등	845	171,368		c
자녀수	1명	1,597	112,667	(-19.20***)	
	2명	2,891	214,156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	대졸 이하	2,851	163,732	(-6.36***)	
	대학원졸	1,608	204,019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	하	1,618	156,735	18.182***	a
	중	2,159	188,170		b
	상	683	200,435		bc
첫 자녀의 학교급	초등학생 이하	2,468	156,292	49.918***	a
	중학생	789	231,051		b
	고등학생	1,231	187,673		c

** p<.01 *** p<.001

고, 주택 소유여부는 비자가 가계를 기준으로 자가인 가계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주택형태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 각각 1점을 부여하였다. 아버지 직업은 서비스·기능직

및 농·어업 종사자 등 기타 직업군을 기준으로 사무·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에게 각각 1점을 부여하였고,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를 기준으로 취업자에게 1점을 부여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고졸과 대졸 이상에 각각 1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은 대졸 이하를 기준으로 대학원졸에 1점을 부여하였고, 자녀의 학교급은 취학전 단계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1점을 부여하였으며, 자녀의 성별은 여자를 기준으로 남자에게 1점을 부여하였다.

1)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7>에 의하면 주택형태 중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 가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이 가계 사교육비 지출의 27.41%를 설명하고 있다.

월평균 가계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 대졸 이상 가변수, 첫째 자녀의 학교급 중 중학교 가변수, 거주지 중 서울 지역 가변수,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 고졸 가변수, 주택형태 중 아파트 가변수, 첫째 자녀의 학교급 중 고등학교 가변수,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 거주지 중 5대 광역시 가변수, 아버지 직업 중 사무·전문직 가변수, 주택 소유여부 가변수인 자가 집단, 어머니의 취업 여부 가변수 취업 집단, 아버지의 직업 중 자영업 가변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가변수 대학원졸 집단 순으로 그 영향력이 높았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와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가 높은 집단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이 교육을 통해 자녀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높은 교육수준이 취직, 승진, 결혼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교육의 선별기능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각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표 7>, 분석에 포함된 열두 개의 변수 중 주택형태 중 연립/다세대주택 가변수와 자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가계소득,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 대졸이상 가변수, 자녀의 학교급 중 중학교 가변수, 거주지 중 서울지역 가변수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집단, 주택형태 중 아파트 거주자, 고등학생의 경우,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자녀, 아버지의 직업이 서비스·기능직을 비롯한 기타 직업보다는 사무·전문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머니가 취업한 가계의 자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가 높은 집단, 자녀가 딸인 경우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분산분석 결과와는 달리 회귀분석 결과 아들보다도 딸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분산분석에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는 반면 회귀분석에서는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의 독립적인 영향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론된다.

3. 개인의 사교육비 지출유형 분석

1) 유형화 및 각 지출유형의 특성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각 사교육 수단에 지출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묶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가지 사교육 수단 중에서 대체성을 지닌 사교육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원을 제외한 네 가지 사교육 수단, 즉 학원수강, 과외교습, 학습지구독료, 방과후 보충학습에 지출하는 비용이 전

<표 7> 사교육비에 대한 중회귀분석

독립변수	가구당 사교육비		1인당 사교육비	
	b	β	b	β
거주지	서울	58,379	36,159	.124***
	5대 광역시	23,553	13,046	.045***
주택소유여부	자가	16,986	9,380	.035**
주택형태	아파트	42,758	26,381	.109***
	연립/다세대 등	5,796	2,533	.008
월평균 가계소득		.396	.244	.210***
아버지 직업	사무·전문직	18,778	10,141	.039**
	자영업	14,926	7,885	.028*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16,922	9,489	.032**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	52,125	30,906	.120***
	대졸 이상	87,293	53,305	.171***
자녀에 대한 부모의 대학원졸 기대교육수준		12,837	8,095	.031**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		3,981	2,346	.050***
자녀수		93,697	-6,541	-.021
(첫 자녀의) 학교급	중학교	68,801	46,391	.142***
	고등학교	45,968	28,825	.090***
자녀 성별	남자	-	-6,217	-.024*
상수		-278,364	-56,725	
R ²		.2741	.1737	
adjusted R ²		.2715	.1717	
F값		103,294***	87,555***	

* p<.05 ** p<.01 *** p<.001

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개인 중에서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개인과 취학전 단계에 있는 개인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700명이 군집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일곱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었다(표 8), <그림 1>.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유형1은 학습지구독료가 전체 사교육비의 절대적인 비율인 97.3%를 차지한다. 학습지구독 외에 다른 세 가지 사교육수단에는 사교육비의 2.7%밖에 지출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군집 대상 개인 4,700명 중 424명(9.0%)이 이 유형에 속한다.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고려해 '학습지 중점형'이라 명명한다.

유형2에 속하는 개인들은 총사교육비의 96.6%를 학원수강료로 지출하며 나머지 세 가지 사교육수단에 지출하는 비용은 총사교육비의 3.4%에 불과하다. 군집 대상의 절반 가량인 2,386명(50.8%)의 개인이 이 유형에는 해당한다. '학원 중점형'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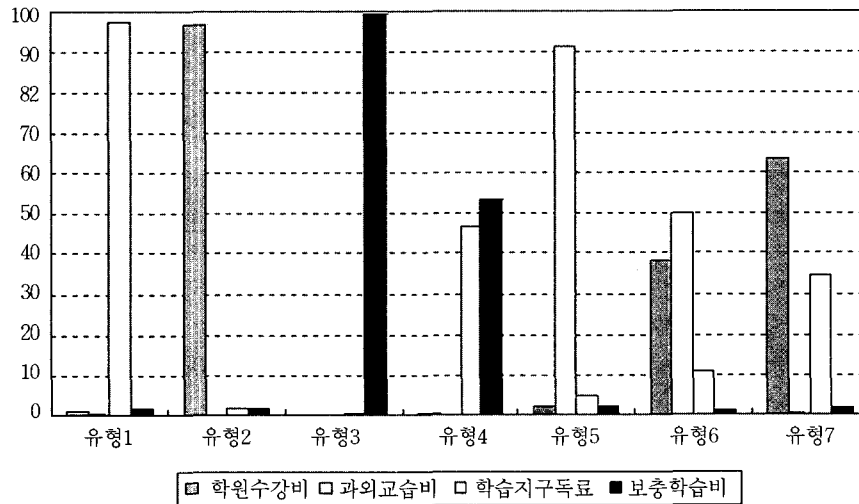
유형3은 거의 모든 사교육비라고 할 수 있는 99.5%의 사교육비를 방과후 보충학습비로 지출하고, 과외는 전혀 받지 않으며 나머지 두 가지 사교육수단에도 거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유형으로서 전체의 9.3%인 437명이 이 유형에 속한다. '보충학습 중점형'이다.

유형4는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 정도씩을 각각 학습지구독료와 방과후 보충학습비로 지출한다. 즉 학

〈표 8〉 각 유형의 사교육 수단별 지출비율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구 분	빈 도 (명)	사교육 수단별 지출 비중(%)							
		학원수강비		과외교습비		학습지구독료		보충학습비	
		평균 (표준편차)	DMR- test	평균 (표준편차)	DMR- test	평균 (표준편차)	DMR- test	평균 (표준편차)	DMR- test
유형1	424	.98 (5.23)	ab	.17 (2.46)	a	97.26 (7.68)	a	1.59 (5.44)	a
유형2	2,386	96.62 (6.69)	c	.11 (1.61)	a	1.72 (4.50)	b	1.55 (4.98)	a
유형3	437	.09 (1.96)	a	.00 (.00)	a	.42 (2.81)	c	99.48 (3.41)	b
유형4	142	.35 (3.01)	ab	.11 (1.32)	a	46.56 (13.92)	d	52.97 (13.74)	c
유형5	300	1.98 (5.35)	b	91.48 (10.35)	b	4.56 (8.95)	e	1.97 (4.46)	a
유형6	159	38.09 (15.31)	d	50.00 (12.21)	c	10.77 (13.83)	f	1.14 (3.98)	a
유형7	852	63.37 (11.65)	e	.35 (2.61)	a	34.53 (12.07)	g	1.74 (6.53)	a
계	4,700	62.06 (41.54)		7.67 (23.98)		18.01 (29.63)		12.26 (29.81)	
F값		21,672.09***		29,231.03***		10,654.43***		21,262.39***	

***p<.001



〈그림 1〉 각 유형의 사교육 수단별 지출비율 막대 그래프

습지구독료에 46.6%를 지불하고 방과후 보충학습비로 53.0%를 지출하며, 나머지 0.4%를 학원수강료와

과외교습비로 지출한다. 이 유형에는 142명(3.0%)이 해당되며 모든 유형 중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개인

이 속한 유형이다. '학습지/보충학습 복합형'이라 칭한다.

유형5는 대부분의 사교육비를 과외교습을 받는데 지출한다. 과외교습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91.5%를 차지하며, 4.6%를 학습지구독료로 지출한다. 300명(6.4%)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과외 중점형'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6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다양하게 사교육 수단을 이용한다. 과외교습과 학원수강, 학습지구독에 골고루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형으로서 과외교습비로 50.0%, 학원수강비로 38.1%, 학습지구독료로 10.8%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이 유형에는 군집 대상의 3.4%인 159명이 속한다. '과외/학원/학습지 복합형'이다.

마지막으로 유형7은 학원수강과 학습지구독에 중점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형이다. 학원수강료로 전체 사교육비의 63.4%, 학습지구독료로 34.5%를 지출한다. 유형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개인들인 852명(18.1%)이 유형에 해당한다. '학원/학습지 복합형'으로 부른다.

2) 유형별 소비자 특성

각 유형별 소비자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시 단칸의 다중범위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학습지 중점형(유형1)은 가계소득이 197만원이고 소득의 2.4%인 43,373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52.1%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65.1%로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낮다. 아버지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비율이 평균보다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전체 평균과 유사해 아버지의 51.9%, 어머니의 56.8%가 고졸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과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는 전체 평균에 가까우며, 58.0%가 초등학생이다.

학원 중점형(유형2)은 가계소득이 217만원이고 소득의 7.1%인 141,06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42.8%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69.9%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20.0%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 아버지의 직업 분포는

<표 9> 사교육 수단의 지출비율에 따른 유형별 소비자특성 일원분산분석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전체	F값
가계소득 (만원)	빈도(명)	424	2,386	437	142	300	159	852	4,700	42.738***
	평균	197,134	217,033	178,501	219,754	286,983	287,547	215,229	218,261	
	표준편차	84,872	107,919	108,359	96,632	177,750	132,592	88,974	112,331	
	DMR-test	a	b	c	b	d	d	b		
총사교육비 (천원)	빈도(명)	424	2,386	437	142	300	159	852	4,700	312.696***
	평균	43,373	141,060	19,219	37,711	335,427	300,509	132,785	134,097	
	표준편차	58,365	103,016	17,607	30,147	313,085	228,959	64,795	142,512	
	DMR-test	a	b	c	ac	d	e	b		
가계소득 대비 총사교육비 비중(%)	빈도(명)	424	2,386	437	142	300	159	852	4,700	220.632***
	평균	2.41	7.11	1.26	1.97	12.78	11.10	6.81	6.43	
	표준편차	3.07	5.41	1.14	1.47	11.89	7.04	3.52	6.08	
	DMR-test	a	b	c	ac	d	e	b		
교육의 선별 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	빈도(명)	421	2,370	433	142	300	159	849	4,674	2.875**
	평균	17.54	17.82	17.67	17.67	18.19	18.13	17.62	17.77	
	표준편차	2.83	2.69	2.98	2.90	2.64	2.58	2.72	2.74	
	DMR-test	a	ac	ac	ab	b	bc	ac		

*** $p < .001$ ** $p < .01$

〈표 10〉 사교육 수단의 지출비율에 따른 유형별 소비자특성 교차분석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유형7	전체	χ^2
거주지	서울	22.4	29.8	12.6	9.2	25.3	33.3	24.5	25.8	148.16***
	5대광역시	25.5	27.4	21.3	33.1	36.0	35.8	28.3	27.8	
	기타	52.1	42.8	66.1	57.7	38.7	30.8	47.2	46.4	
	계	9.0	50.8	9.3	3.0	6.4	3.4	18.1	100.0	
주택 소유여부	자가	65.1	69.9	78.3	83.1	82.3	80.5	69.8	71.8	55.75***
	비자가	34.9	30.1	21.7	16.9	17.7	19.5	30.2	28.2	
	계	9.0	50.8	9.3	3.0	6.4	3.4	18.1	100.0	
주택 형태	단독주택	47.2	45.1	61.6	43.7	29.7	22.0	36.6	43.4	200.53***
	아파트	35.4	35.0	24.0	45.8	58.7	62.9	46.7	38.9	
	연립 등	17.5	20.0	14.4	10.6	11.7	15.1	16.7	17.7	
	계	9.0	50.8	9.3	3.0	6.4	3.4	18.1	100.0	
아버지 직업	사무전문직	37.9	38.0	27.4	42.1	52.5	53.2	49.2	40.6	202.64***
	자유업	34.4	29.6	47.1	25.7	12.7	9.5	22.3	28.4	
	기타	27.7	32.5	25.5	32.1	34.8	37.3	28.5	31.0	
	계	9.0	50.9	9.1	3.0	6.4	3.4	18.1	100.0	
어머니 취업여부	비취업	76.2	71.9	59.3	72.5	77.0	81.1	81.3	73.5	83.75***
	취업	23.8	28.1	40.7	27.5	23.0	18.9	18.7	26.5	
	계	9.0	50.8	9.3	3.0	6.4	3.4	18.1	100.0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14.7	15.5	36.8	21.4	5.7	1.3	5.5	14.7	370.10***
	고졸	51.9	51.3	46.4	47.9	40.1	38.0	49.0	49.2	
	대졸이상	33.4	33.1	16.9	30.7	54.2	60.8	45.5	36.1	
	계	9.0	50.9	9.2	3.0	6.4	3.4	18.2	100.0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24.8	23.9	53.3	35.9	13.7	3.1	11.2	23.4	433.57***
	고졸	56.8	59.5	39.8	49.3	52.3	57.2	64.7	57.5	
	대졸이상	18.4	16.5	6.9	14.8	34.0	39.6	24.2	19.0	
	계	9.0	50.7	9.3	3.0	6.4	3.4	18.1	100.0	
부모의 기대교육 수준	대졸이하	62.2	65.1	72.8	69.0	53.0	54.1	61.1	63.8	43.28***
	대학원졸이상	37.8	34.9	27.2	31.0	47.0	45.9	38.9	36.2	
	계	9.0	50.7	9.3	3.0	6.4	3.4	18.2	100.0	
자녀수	1명	17.5	17.1	28.1	25.4	17.0	17.0	13.6	17.7	48.95***
	2명	82.5	82.9	71.9	74.6	83.0	83.0	86.4	82.3	
	계	9.0	50.8	9.3	3.0	6.4	3.4	18.1	100.0	
성별	남자	60.9	56.9	56.1	55.0	55.3	52.6	51.3	55.9	18.15
	여자	39.1	43.1	43.9	45.0	44.7	47.4	48.7	44.1	
	계	9.0	50.8	9.4	3.0	6.3	3.3	18.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8.0	49.0	6.2	7.0	28.0	61.6	85.7	50.3	1368.50***
	중학교	21.5	29.6	22.9	8.5	40.7	27.7	9.9	24.7	
	고등학교	20.5	21.4	70.9	84.5	31.3	10.7	4.5	25.0	
	계	9.0	50.8	9.3	3.0	6.4	3.4	18.1	100.0	

*** p<.001

평균과 흡사해 4:3:3 비율로 사무·전문직, 자영업, 기타 직업에 종사하며, 어머니의 취업률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28.1%이다. 아버지의 51.3%와 어머니의 59.5%가 고졸로서 평균 교육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자녀를 대학원 이상까지 교육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가 평균보다 약간 낮다. 49.0%가 초등학교생이다.

보통학습 중점형(유형3)은 가계소득이 179만원이고 소득의 1.3%인 19,219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데,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지출비율 모두 전체 유형 중 가장 낮다. 66.1%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78.3%로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1.6%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7.1%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고 어머니의 취업률 역시 40.7%로 가장 높다. 전체 유형 중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아서 아버지의 36.8%, 어머니의 53.3%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나타낸다. 자녀의 기대 교육수준 역시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으며,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지지도도 평균보다 약간 낮다. 70.9%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습지/보통학습 복합형(유형4)은 가계소득이 220만원 정도로 전체 평균과 아주 유사하며, 소득의 2.0%인 37,711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데 사교육비 지출액과 소득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학습 중점형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9.2%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낮고 57.7%가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83.1%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으며, 45.8%가 아파트, 43.7%가 단독주택에 거주한다. 아버지의 42.1%가 사무·전문직에 종사하고 어머니의 72.5%가 전업주부로서 전체 평균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47.9%, 어머니의 49.3%가 고졸로 보통학습 중점형(유형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자녀가 대학원 이상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정도도 보통학습 중점형(유형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는 평균보다 약간 낮다. 84.5%가 고등학교생이다.

과의 중점형(유형5)은 가계소득이 287만원이고 소득의 12.8%인 335,427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한다. 가계소득은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고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36.0%가 광역시에 거주하고, 25.3%는 서울에 거주하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 82.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58.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택 소유율과 아파트 거주율이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아버지의 52.5%가 사무·전문직에 종사하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어머니의 취업률은 23.0%로 평균보다 약간 낮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아 아버지의 54.2%와 어머니의 34.0%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자녀를 대학원 이상까지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가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 40.7%가 중학생, 31.3%가 고등학교생이다.

과의/학원/학습지 복합형(유형6)은 가계소득이 288만원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높다. 소득의 11.1%인 300,509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데 사교육비 지출액과 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율 모두 전체 유형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33.3%가 서울에 거주하고 35.8%는 광역시, 30.8%는 기타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서울 거주율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반면 기타 지역의 거주율은 가장 낮다. 80.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파트 거주율이 62.9%로 가장 높다. 아버지가 사무·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아 53.2%인 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9.5%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낮다. 어머니의 취업률은 18.9%로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낮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아 아버지의 60.8%, 어머니의 39.6%가 대졸 이상의 학력 분포를 보인다. 자녀를 대학원 이상까지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욕구와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가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다. 이 유형에 속한 개인의 61.6%가 초등학교생이다.

학원/학습지 복합형(유형7)은 가계소득이 215만원이고 소득의 6.8%인 132,785원을 사교육비로 지출

하는데, 이것 모두 약간의 가감은 있으나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이다. 47.2%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69.8%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 소유율이 전체 유형 중 두 번째로 낮으며, 46.7%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의 49.2%가 사무·전문직에 종사하며, 어머니의 81.3%가 전업주부로 어머니의 취업률이 전체 유형 중 가장 낮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전체 유형 중 세 번째로 높아 아버지의 45.5%, 어머니의 24.2%가 대졸 이상을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은 평균보다 약간 높고,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는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 이 유형에 속한 개인의 85.7%가 초등학교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유형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보충학습 중점형(유형3)과 학습지 중점형(유형1)은 가계소득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도 적고 사교육 수단의 선택도 제한 받는 집단이다. 이에 비해 과외/학원/학습지 복합형(유형6)과 과외 중점형(유형5)은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많으며 부모의 교육수준, 주택 보유율, 아파트 거주율, 아버지가 사무·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 모두 높은 집단이다. 한편 학원 중점형(유형2)과 학습지/보충학습 복합형(유형4), 학원/학습지 복합형(유형7)은 가계소득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학습지/보충학습 복합형의 경우 학원 중점형과 학원/학습지 복합형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1/3에도 못 미친다. 학원 중점형과 학원/학습지 복합형에 비교해 볼 때 학습지/보충학습 복합형은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 부모의 교육수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유형에 속하는 개인의 학교급이 대부분 고등학교생이기 때문에 부모의 연령이 많은 데서 유형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교육 수단별 지출비율에 따라 개인을 유형화시킴으로써, 사교육 지출 양태를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사교육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교육비 지출은 각 가계와 개인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가계 소득이 높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사교육비 지출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사교육 수단별 지출 비용을 기초로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에서도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과외, 학원, 학습지에 골고루 지출하거나 과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반면, 저소득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위 비용이 낮은 보충학습이나 학습지에 대부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의 높은 사교육비 지출은 선택재의 성격을 띠는 사교육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선별기능에 대한 부모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개인의 능력보다는 학력이 우선 시 되는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과도한 사교육 지출이 근절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가계와 개인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계의 경제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지출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행동으로서 당연하다 하겠으나 우리 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운영에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과도하게 지출되는 경향이어서 순수하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행동만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공교육의 부실이나 학력을 우선 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현행과 같이 가계의 비정상적인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대입 전형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과외 금지책을 내놓는 등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벌여온 것이 사실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사교육으로 행해지는 각종 교육내용들이 공교육으로 효과적으로 흡수되지 않는 한, 정부의 사교육 관련 대책들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현재 사교육을 통해 행해지고 있는 각종 교육내용을 공교육 분야에서 흡수하게 되면 추가적인 사교육이 불필요할 것이며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모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가 어렵고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방과후 보충학습과 학습지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각 학교에서 방과후 보충학습이 반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보충학습 외에는 사교육을 거의 받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보충학습을 통해 저렴한 비용에 각종 재능 교육과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경제적 수준이 상이한 가계간의 형평을 유지함은 물론 사교육으로 인한 각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교육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주요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각종 재능 개발을 위한 사교육과 고입 및 대입을 대비한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이 병행되기 때문이며, 고등학생은 본격적으로 대입을 위한 사교육비가 지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이 계층에 초점을

맞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상당수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유치원 단위 비용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해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주도하고 있는 중산층에 주효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고, 사교육 수단 중에서 단위 비용이 가장 큰 과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견제와 단속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성희(1996),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_____·김순미(1997),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및 위탁양육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37-251
- 3) _____(1998),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비 지출: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 129-142
- 4) 김시월(1998), 사교육비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한국문제연구원 「교육과 삶의 질」 심포지움 자료, 1-46
- 5) 대우경제연구소(1995), 우리나라 가구의 교육비 지출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 6)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 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4
- 7)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71-184
- 8) 박정수(1996), 교육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교육비, 교육재정·경제연구, 5(2), 515-538
- 9) 양세정·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

- 한 영향요인 분석: 자녀수와 자녀 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 10) 윤정일(1997), 사교육비의 개념, 증가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19, 1-28
- 11) 이순형·류정순(1998), 한국 도시 학부모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계층별 불평등과 정책적 함의, 건국대학교 한국문제연구원 「교육과 삶의 질」 심포지움 자료, 1-27
- 12) 이윤금(1997), 미국가계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대한가정학회지, 35(4), 229-241
- 13)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1), 1-13
- 14) _____(1996), 가계의 교육비지출과 선별가설: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2), 207-222
- 15) 통계청(1999), 1999 한국의 사회지표
- 16) 한국교육개발원(1996), 한국의 교육지표 1996
- 17)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 18) 허경옥(1995), 편모가정과 일반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출비교 분석, 소비자학연구, 6(1), 1-19
- 19) _____(1997), 가계의 자녀양육에의 지출액 측정: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 소비자학연구, 8(2), 1-19
- 20) Abdel-Ghany, M. & Schwenk, F.(1993), Differences in Consumption Patterns of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 299-315
- 21) Abdel-Ghany, M. & Sharpe, D.L.(1997), Consumption Patterns Among Ethnic Groups in Canad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21(2), 215-223
- 22) Arrow, K.(1973), Higher Education as a Fil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3), 193-216
- 23) Becker, G.S.(199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24) Bryant, W.K.(1992), Human Capital, Time Use, and Other Family Behavior,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3(4), 395-405
- 25) Erikson, G.(1991), Human Capital Investments and Labor Mobility,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36-254
- 26) Fan, J.X. & Stafford, K.(1994), Determinants of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239-246
- 27) Kenneth, I.W.(1977), Education and Screen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7, 949-958
- 28) Layard, R. & Psacharopoulos, G.(1974), The Screening Hyp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985-998
- 29) Mincer, J.(1958),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281-302
- 30) OECD(1996), Education at a Glance
- 31) Riley, J.G.(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2), s227-s252
- 32) Schultz, T.W.(1960), Capital Formation by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7, 571-583
- 33) _____(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 34) Spence, M.(1973), Job Market Signa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3), 355-374
- 35) Stiglitz, J.(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283-300
- 36) Wolpin, K.I.(1977), Education and Screen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7(5), 949-958